

# 대중문화 거장 김민기, 하늘에 지다

### 익산 출생 · ‘아침이슬·상록수’ 등 작곡 · 대학로 소극장 ‘학전’ 운영 익산시, 지역 예술계과 김민기 추모공원 조성 등 다양한 논의 진행 중

익산시가 대중문화의 거장 고(故) 김민기를 기리기 위해 지역 예술인과 함께 김민기 추모공원 조성을 논의한다. 위치와 공간 등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노래들은 금지곡으로 지정됐고, 아침이슬은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군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져 저항정

신을 되새기게 했다. 정부의 탄압을 피해 농사를 짓던 1981년에는 전북 지역의 연극패, 노래패와 함께 동화농민운동을 다룬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를 제작했다. 1991년 김민기는 가수의 길을 내려놓고 학전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연극 연출가의 길을 시작했다. 특히 한국 뮤지컬역사의 기념비적 작품 '지하철 1호선'은 1994년 초연 후 지난해까지 8000회 이상 공연되며 배우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등을 배출했다. 문화예술계에 큰 족적을 남긴 김민기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후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추모공원 등 지역 예술계와 고인을 기릴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국가 예산 확보 위해 총력전

### 기재부 2차 예산심의 대응 위해... 정부 예산 핵심 간부 찾아 예산 반영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강행군 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익산시는 정현을 시장이 24일 기획재정부 2차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예산 핵심 간부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지역 경제 상황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운진 경제예산심의관과 계강훈 예산총괄과장을 비롯해 유수영 미래전략국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이어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에게는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다공성 탄소소재 기반구축사업 등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의 면담에서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민호 기후환경예산과장에게는 △송화동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 △북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강준모 국토교통예산과장을 만나 KTX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과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7월까지 계속사업의 2차 심의를 진행하고 8월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심의할 예정으로 익산시는 이에 맞춰 8월부터 신규사업 심의 대응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조감상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이춘석·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정현을 시장은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가 어느 해보다 강력해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9월 초까지 이어질 기재부 단계에서 익산시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문화재단, '심야마음병원' 운영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강인준, 이하 재단)은 2024 문화로 사회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3달 간 '심야마음병원'을 운영한다. '심야 마음병원'은 정서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이다. 상담 시간을 확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지역 내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의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 안내된 사회적 연결성 척도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나오면 개별 연락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회당 50분가량의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익산 수해 현장 방문

###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위해 노력 아끼지 않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상민 장관은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함리산 산사태 지역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히 응급 복구를 완료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이상민 장관은 산북천 제방 유실 현장과 함리산 산사태 지역 등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신속히 응급 복구를 완료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시는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초과했다"며 "신속한 지정과 함께 항구적인 재난방재대책 수립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현장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

하다"며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부는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4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행안부 등 중앙부처 합동조사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세아베스틸·군산시,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

### 군산시 저소득층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약속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과 군산시가 복지 소외계층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동이 진행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4일에 체결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 협약식을 통해 (주)세아베스틸과 군산시는 2024년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 추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세아베스틸은 군산시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으로 선풍기 등 2,100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상품까지 함께 기탁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협약 후에는 △명절 백미 기탁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름나기·겨울나기 상품 후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의 사회공헌 활

동간 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으로 2012년부터 군산시의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체결해 13년째 어려운 이웃 및 복지시설에 총 24억원 상당을 후원하며 지속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나운2동-천안시 북면, 농산물 직거래 교류 행사

군산시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백만)에서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자매결연기관 천안시 북면과 함께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교류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3일 열린 군산시 나운2동 직거래 장터에서는 천안시 북면 우수 농산물인 단호박과 옥수수를 사전접수 방식을 통해 총 768방을 (총 1,071만원) 판매하였다. 다음날인 24일 천안시 북면사무소에

서 열린 직거래 장터에선 군산시 농산물 환할살보리를 선주문반이 약 844포대(총 1,097만2,000원) 정도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 나운2동과 북면은 앞으로도 매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한 꾸준한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변함없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간 노력은 물론 더욱 더 발전된 교류와 친목 도모를 지속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 징수 규정 마련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제 263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

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급이 되고 있는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소요비용에 대한 대여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견인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진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인 곳 등이다.

박 의원은 "익산 등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정착하고,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